

청년들의 힘으로 행복도시 앞당긴다

전주시, '혼밥족' 위한 전주푸드 밀반찬 만들기·예식장 위주 결혼문화 탈피 등 희망단 제안 정책 검토

혼자 밥을 먹는 전주 청년들은 전주푸드를 이용해 만든 밀반찬을 함께 만들어 건강한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지역 청년들은 음식점 위주의 결혼 문화에서 탈피해 전주시 유희공간을 활용한 새로운 전주형 결혼식 문화를 만들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은 만 19세~39세의 전주시 청년 60명으로 구성된 전주시 청년희망단이 지난 1년간 토론회와 회의 등 다양한 활동을 거쳐 제안한 청년정책사업들로, 전주시는 전문가와 실무부서의 검토 등을 거쳐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청년복지사업인 '오늘 뭐 먹었어'는 부모로부터 독립해 혼자 거주하는 청년들이 스스로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 전주로컬푸드매장에서 준비한 재료로 정기적으로 반찬을 함께 만들어 나누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인스턴트식품과 외식 위주의 식생활에 길들여진 1인 가구 청년들에게 건강한 식단을 제공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의 건강도 돌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시의원과 대학교수, 청년단체, 일반청년, 시 국장급 간부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청년희망도시 정책위원회 위원들도 청년희망단이 최종 제안한 10개 사업 중 이 사업에 가장 높은 점수를 매겼다.

청년제안 사업 평가에서 2위를 차지한 '청춘웨딩시티' 사업은 문화와 예술 등 각 분야에 종사하는 청년들이 힘을 모아 전주시 유희공간을 활

용해 예식장소를 꾸미고 제공해 새로운 결혼식 문화를 만들어가는 사업이다.

이 사업이 실현되면, 현재 예식장 위주의 전통일물적인 예식문화에서 벗어나 저비용·고효율의 색다른 예식문화를 정착시켜, 취업과 함께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이자 관심사로 꼽히는 결혼문제에 대한 해법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와 함께, 전주시 청년들은 스스로의 행복을 찾기 위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확대방안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거나, 청년들의 시정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일례로, 청년들이 제안한 '학자금 이자지원 확대' 사업은 교육비에 대한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줄이고 미

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추진해온 '전주시 지역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이자를 차등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시는 제안된 청년정책에 대해 실무부서의 실현가능성과 지속가능성, 정책·사업의 적절성 등을 검토한 후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들이 제안한 전주시만의 청년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청년희망도시 전주를 실현시킬 것"이라며 "전주시가 감정으로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산들을 활용해 청년 일자리도 만들어 청년희망도시 기반을 갖추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인재용 기자

문 열린 차량 턴 20대 검거

완산경찰서는 19일 절도 등의 혐의로 A(22남)씨를 검거했다.

A씨는 지난 7월 4일 오전 7시에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한 주차장에서 차량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차량에 있던 현금과 상품권 등 7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 9일까지 전주시와 완주군 일대를 돌면서 같은 수법으로 총 8회에 걸쳐 약 8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했다.

A씨는 차량 리모콘을 이용해 차량을 시정할 시 후사경이 같이 접히는 점을 이용해 차량 시정 여부를 파악했다.

경찰은 블랙박스와 주변 CCTV를 분석결과 A씨의 범행을 밝혀냈다.

경찰은 A씨에게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이성민 기자

사고 충격으로 50대 여성 사망

19일 오전 10시20분께 전북 완주군 봉동읍 한 사거리에서 H 트럭과 SUV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트럭 조수석에 타고 있던 김모(51·여)씨가 차 밖으로 튕겨 나가 트럭 아래 깔렸다.

김씨는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성민 기자

찾아가는 생활민원, 현장점검 시민 불편 해소

권역별·분야별 생활민원 기동순찰 현장점검으로 745건 처리

전주시가 생활민원에 대한 기동순찰 현장점검으로 시민들의 생활 속 불편을 줄여 나가고 있다.

시는 생활공간 주변에서 발생하는 생활 불편사항과 안전사고, 미관저해 사항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주민신고에만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대로변을 중심으로 한 권역별·분야별 점검활동을 펼친 결과, 올 상반기에만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 온 총 745건의 생활불편사항을 처리했다.

특히, 시는 간선도로와 도심 생활민원은 물론,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할 수 있는 이면도로와 시 외곽지 등 민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 왔다.

민원 분야별로는 도로·교통시설물 498건, 공원·녹지시설물 101건, 생활쓰레기·불법광고물 104건, 기타민원 42건 등이다.

또한, 시는 올해부터는 민원신고가 스마트폰과 국민신문고, 시 홈페이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동일한 민원 사항이 중복으로 신고되는 사례를 예방해 민원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설물 보수에 시일이 걸리는 민원에 대해서는 '처리중' 안내표찰을 부착하는 등 시민들의 민원처리 만족도를 높이고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도 주력했다.



전주시가 생활민원에 대한 기동순찰 현장점검으로 시민들의 생활 속 불편을 줄여 나가고 있다.

그 결과, 매년 급증하던 인터넷 민원신고 건수가 2017년부터 감소세로 전환되는 성과를 거뒀다. 실제, 최근 생활불편사항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과 인터넷 등의 활용이 늘면서 매년 상반기 기준 민원신고 건수가 지난 2014년 2,562건에서 2015년 4,458건, 2016년 7,189건으로 급격히 증가해왔으나, 올해는 6,933건으로 민원신고건수가 감소했다.

시는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공공시설물인 버스승강장, 공원, 하천 산책로 편의시설, 운동기구 등의 시설물

파손 시 '처리중' 안내표찰을 부착해 중복성고를 예방한 것이 생활민원을 감소시키는데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양영숙 자치행정과장은 "생활민원의 선제적, 예방적인 현장 기동순찰을 통해 생활민원 신고건수가 많이 감소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생활불편사항, 사고위해 요소, 도시미관 저해사항 등을 중심으로 시민불편 최소화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재용 기자

세금 고충 해결사, 마을세무사가 찾아간다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운영... 민원 1200여건 상담

전주시 마을세무사들이 올 하반기에도 세금 고충 민원해결을 위해 시민들을 찾아 나선다.

19일 전주시에 따르면 찾아가는 무료 세무 상담 서비스를 통해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문제를 쉽게 처리하는데 도움을 주는 마을세무사 제도를 올 하반기에도 적극 운영할 계획이다.

'마을세무사'는 세무분야의 전문성과 공익활동에 대한 재능기부 의사가 있는 세무사를 우리 마을 담당 세무사로 지정하고 세무 상담 및 권리구제를 원하는 시민을 서로 연결해 상담하는 제도로, 현재 시는 8개 권역 26명 마을세무사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시는 지난 18일 인취동 위브아울림도 세무 고충 민원해결을 위해 시민들을 찾아 나선다.

19일 전주시에 따르면 찾아가는 무료 세무 상담 서비스를 통해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문제를 쉽게 처리하는데 도움을 주는 마을세무사 제도를 올 하반기에도 적극 운영할 계획이다.

'마을세무사'는 세무분야의 전문성과 공익활동에 대한 재능기부 의사가 있는 세무사를 우리 마을 담당 세무사로 지정하고 세무 상담 및 권리구제를 원하는 시민을 서로 연결해 상담하는 제도로, 현재 시는 8개 권역 26명 마을세무사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인재용 기자

전주시, 도심속 무단방치 자전거 일제 수거

전주시가 거리에 방치돼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경관을 저해시키는 무단방치 자전거를 정비하기로 했다.

시는 6월 한 달 동안 전수조사를 통해 무단방치자전거 62대를 일제수거하고, 그중 주인을 찾지 못한 무단방치자전거 50대에 대한 처분에정공고를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이를 위해, 시 자전거정책과 전 직원은 책임구역을 나눠 주요 도로와 공공기관 청사, 공원 등 공공장소에 위치한 자전거보관대를 직접 조사하고, 확인된 무단방치자전거에 수거예정 계고장을 부착했다.

또한, 10일 이상 계고 후에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은 자전거를 모두 수거해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시는 14일간의 공고기간 내에 주인이 찾아가지 않는 무단방치자전거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도 매월 1회씩 정기적으로 자전거 이용시설 점검에 나서 무단방치 자전거와 자전거 이용시설 불편사항 등을 꾸준히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이호범 자전거정책과장은 "무단방치 자전거를 수거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자전거를 버리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재용 기자

전주시, 21일까지 '성인지·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전주시가 남성과 여성이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나섰다.

시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주요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실무 공무원 210여명을 대상으로 '성인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양성평등정책의 올바른 정착과 공무원의 성인지 역량강화를 위한 것으로, 박홍주 총부여성재단 정책연구팀장과 백희정 광주여성민우회 대표, 임우연 충남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장이 강사로 초빙돼 성평등 정책

의 이해도를 높이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개념의 이해, 분석기법, 우수사례를 중심으로 한 실무위주 교육을 진행했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교육을 통해 정책을 입안하고 업무를 직접 추진하는 실무자들의 양성평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중요성을 공감하고 성인지적 관점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maeil.com

www.jjnh.co.kr

조합원님!! 자식 같은 농산물 모두 팔아주는 농협을 만들겠습니다.

전주농협 산지유통센터 신축으로 전주시 통합마케팅 시스템 구축로컬푸드직매장 10곳 개소로 영세농업인 소득향상



복숭아



장미



미나리



호박



배



조합장 임인규

상임이사 (신용)오태식
상임이사 (경제)나병훈

이사 김대진, 김양순, 김중표, 김태영, 김형수, 송재규, 신동선, 오남석, 유석용, 이상현, 이상경, 주동현

사외이사 김병운, 이희열
감사 정무성, 조미희

전주농협연합동조합